

참으로 이상한 사람들

박 남 규 (본회 이사)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와! 세월 빠르네!”라며 새삼스레 벌써 이렇게 됐나 하고 느낀다.

처음 호스피스를 한다고 교회에 광고를 했더니 어느 한 교인의 전화가 떠오른다. “저어, 호스피스와 호스텍스의 차이점이 무엇이죠?” 했던 황당했던 질문. 벌써 12년 전의 일이다.

작년 연말에 11주년 행사를 하면서 10년 이상 나와 함께 사역을 한 사람 12명을 한 자리에 불러 놓고 축하하며 소감을 물어보았다. 왜 호스피스를 하게 되었고 그동안 무슨 기쁨이 있었느냐고? 그들 자원봉사자들은 한결같이 같은 대답을 했다.

처음에는 뭘 모르고 떠밀려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제 10년을 지나며 돌아보니, 자신들이 맡은 환자들이 평안한 임종을 맞는 것을 보면 희열과 감사를 느끼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호스피스 봉사자로 남게 된 이유이며 앞으로도 그 희열과 감사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 봉사자로 섬기는데 10년은 더 보장받고 싶다는 것이다.

봉사자의 삶을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참으로 이상스러운 사람들의 고백이다.

이들은 말기 암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찾아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 예수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회복하도록 그들의 남은 삶을 지지해 주는, 그러면서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갖는 이 사람들의 섬김은 절망과 고통받던 자리에서 구원의 큰 감격과 확신을 갖고 재앙 같은 현실을 뛰어 넘어 평안과 소망의 길로 들어가도록 섬기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세상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한 영혼 영혼들에게 분명한 목적과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다.

나는 이런 일들이 좋아서 올해로 12년을 이 사역만을 위해 존재하는 목사가 되었다. ‘후회해 보았었나?’ 하고 되돌아보니 감사하게도 아직도 가슴에 안타까움이 남아 있고 저러움이 남아있기에 남들이 “참 이상합니다 왜 이 힘든 이 일만 합니까?” 하고 물으면 나는 이 사람들과 함께 힘들지도 않는 행복함을 누리는 사역자라고 말한다.

그러나 가끔 슬플 때가 있다. 아직은 주님 품에 안기기에는 너무나 어린 아이들이 우리 곁을 떠날 때는 내 새끼를 떠나보낸양 슬픔과 저림이 찾아온다.

좀 더 투병을 잘 할라치면 효과가 있으면만 우왕좌왕 하다가 이상한 치료법과 유혹에 빠져 너무나 고통받는 자들을 보면 슬프다 못해 분노가 끓어 오른다.

남겨 두고 떠난 사람들과 약속하기를 떠나셔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염려하지 않도록 남긴 자들을 잘 섬기겠다고 약속했는데 떠난 자들이 남겨놓은 빗더미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찌들려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 풍성히 도와줄 수 없어 조그맣고 얇은 봉투를 내미는 내 손을 한없이 저만치 뒷걸음질하여 숨기고 싶고 재벌이 되지 못한 슬픔이 찾아온다.

그래서 나는 소망을 하나 갖고 기도한다.

이런 이상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며, 고통받고

낙심한 환자와 그들이 남겨둔 가족들과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날 공동체를 살아가고 싶다는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박장대소 웃으실 수 있도록 하고 싶다. ♥

지상강좌

호스피스 정책과 관련된 한국호스피스협회의 의견

다음 내용은 2003년 4월부터 시작되는 “호스피스 시범사업”에 즈음하여 한국호스피스협회의 입장을 보건복지부에 보낸 내용입니다.

그동안 비 제도권 하에서 많은 어려움을 견디며 묵묵히 호스피스 활동을 감당해 온 민간단체들이 모여 1991년 한국호스피스협회(이하 본회)를 결성하고 우리나라 전체 호스피스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는 본회 입장에서 호스피스 제도화의 첫걸음인 시범사업 시행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 없으며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이 존중되고 호스피스의 원래 봉사 정신과 일치되며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을 지원, 계도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활성화되는 제도가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에 속한 모든 회원들이 실제 호스피스 현장에서 오랫동안 축적한 경험들을 토대로 호스피스의 올바른 정신과 그에 따른 제도화 방향에 대한 본회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정

리하여 보내드리오니 귀 부에서 ‘호스피스 복지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데 참조해 주십시오. 그래서 죽음의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국민들의 삶의 질을 실제적으로 높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제도가 만들어져 요람에서 무덤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명실상부한 복지국가가 건설되기를 바랍니다.

1) 행복하게 죽을 권리

말기 환자와 가족이 원하는 장소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 주어야 한다.

모든 유형(병원형, 가정형, 시설형, 주간/day care형)의 호스피스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2) 전인적 케어, 인간 평등

호스피스는 한 생명이 살아오면서 맺었던 모든 삶의 복잡한 관계를 후회없이 정리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잘 유지되는 상태에서 생을 마무리 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호스피스는 죽음이 예견되는 모든 말기환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전인적 케어가 요구되므로 여러 직능의 종사자들이 세워져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고 힘과 지혜를 모으는 팀 활동이다. 그러므로 호스피스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종사자들이 평등하다는 입장을 존중해 주어 직능 차이에 따라 인권이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

◇ 호스피스 제도에 말기 암환자 뿐만이 아니라 말기 에이즈 등 임종이 일정기간(보통 6개월 전후) 예측되는 모든 말기환자를 포함 시켜야 한다.

◇ 의사, 간호사, 성직자, 사회복지사 등 호스피스 종사자들을 평가할 때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따라서 기본적인 인력구성의 점수를 정하는데 있어서 모든 직종에 동일한